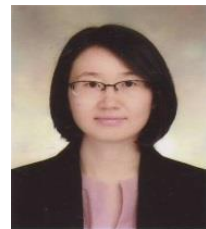


참여연구원 칼럼

첫 마음에 대한 단상

장윤미 (서강대학교 중국연구소)



지난 해 10월 18일 개막된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주제는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자(不忘初心, 牢記使命)”는 것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왜 지금 초심을 들고 나왔는가? 공산당원이 잃지 말아야 할 ‘첫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개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는 말은 뭔가 일이 잘못 되어가고 있을 때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다시 상기함으로써, 원래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불굴의 의지와 끈기로 이뤄내겠다고 다짐할 때 쓴다.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하고 교만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미를 내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인지만 무언가를 어느 정도 이뤄냈을 때 자만하기 쉽고, 또한 무엇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기도 쉽다. 목적과 수단의 전도로 길을 잃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길이 다시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사회주의 완성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 것인데, 어느새 사회주의 가치 실현이란 목표는 사라지고 개혁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려 길을 잃은 중국 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꺼낸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초심은 헤이해진 마음을 단속하는 다짐이기도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한다. 초심은 상황인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구상이 달라지면 초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상황과 미래 목표에 맞춰 초심이 재구성되기도 하고, 처음 마음먹은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 공산당원이 돌아가야 할 초심을 간직한 그 때란 언제인가?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은 개혁개방 초기인가, 1949년 사회주의 혁명국가 건설에 매진하자고 마음먹은 때인가, 아니면 1921년 53명에 불과했던 당원으로 중국 공산당을 창당할 당시의 초심인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有始有終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은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말이다.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그리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초심과 사명을 잊지 말자고 한다. ‘사회주의’는 높이 들어야 할 旗幟, 즉 수단일 뿐이지 중국의 목표는 이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변했다. 여기서 초심은 개혁개방 초기, 건국 초기, 창당 초기를 가로질러 중국이 서구 제국주의에 패배했던 바로 그 굴욕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근현대사는 기존의 보편적인 문명제국이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패배했다는 굴욕감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후의 역사는 다시 중화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치체제와 국가형태를 모색하는 부단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근현대 이후 지속되어온 과제”로 인식한다. 근대로의 이행기 이후 지속되어왔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대적 과제가 남아있다는 역사인식이 중국 엘리트 사이에 뿌리박혀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오늘날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이후부터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재인식 속에서 “초심을 잃지 말자”고 한 것은 중화민족의 굴욕의 역사를 잊지 말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이 되자는 호소이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야 할 사명이 공산당에게 주어졌고, 당을 중심이 되어 한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초심을 유지하자는 말처럼 쉽지만 어려운 것이 없고, 저마다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초심은 다르다. 시진핑의 마음과 인민의 마음 역시 같을 수 없다.

남북관계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을 자주 쓴다. 70년 전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남과 북이 함께 회복해야 할 첫 마음이란 무엇일까? 서로에 대한 ‘적대적 마음’을 내부 통합에 활용해왔고 ‘같은 민족’이란 생각이 이제 상상 속에서만 남아있으며 완전히 다른 정치적 정체성과 미래구상을 가진 남과 북 두 개의 국가에서, 마음통합을 위해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첫 마음이란 무엇이고 역사의 어느 지점을 미래와 연결할 수 있을까?

기획기사

이기는 ‘평화 프레임’이 필요하다 ‘평양 올림픽’에 맞선 선전 전략 “쉽고, 반복해야”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선전은 사람의 생각과 인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조직 활동이다. 미디어와 책, 포스터 등은 선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다. 역사적으로 권력집단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전물을 적극 활용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쓰인 ‘때려잡자 공산당’은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을 반영한 선전물이었다. 정부는 선과 악의 대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반대진영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 자료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민주사회라고 해서 선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 가지각색의 선전물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만든 대북 선전물 ‘빠라’가 대표적이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 생활상을 비난하고,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알리는 빠라는 남한의 체제선전에 다름 아니다.

물론 선전물이 유통됐다고 대중이 바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Needs)를 반영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듯 선전 역시 오랫동안 기획되고, 참신해야 한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는 선전이 빈민층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대중적이어서 한다고 주장했다. ‘짧게, 강하게, 반복적으로’는 그가 생각한 선전의 핵심이었다. 이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축소하는 ‘프레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학자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프레임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믿는 것을 의식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다”며 “이 작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며 부단한 과정으로 반복과 집중, 헌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당·언론 등이 만든 ‘평양 올림픽’ 프레임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보수 야당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 초부터 급박하게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남한 방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등에 맞서 ‘평양 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한국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분단 이데올로기를 부각해 신성한 올림픽을 정치적 이권투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평양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오른 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다. 그는 지난달 18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두고 “우리가 유치한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일주일 뒤인 24일에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이 실시간 검색어 노출을 다투는 ‘실검전쟁’이 벌어졌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로, 지지자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생일 축하 광고를 비롯해 ‘평화 올림픽’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는 이벤트를 열었다.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양 올림픽’으로 맞섰다.

논란의 대열에 언론까지 가세했다. 윤평중 한신대학교 교수는 지난 2월 2일 <조선일보>에 ‘민족보다 국가가 먼저다’

라는 칼럼에서 “‘평화 올림픽’ 대(對) ‘평양 올림픽’ 담론이 격렬하게 충돌한다”고 운을 뗀 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북한의 억지에 끌려간다면 민주 정부의 품격이 크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는 스포츠나 남북 정상회담 같은 일회성 행사로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당과 네티즌, 언론 등이 합심해 만든 ‘평양 올림픽’ 프레임은 한껏 고조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6일 발표한 “TV조선, ‘평양 올림픽 프레임’의 근원 중 하나”라는 방송모니터 보고서에서 “TV조선은 언론이 견지해야 할 객관성, 합리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 프로그램에서는 ‘평양 올림픽’ 발언만 5차례나 나왔고, 근거는 편협한 주관적 판단에 기인하거나 개연성이 부족한 추측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주목할 점은 TV조선이 ‘평양 올림픽론’을 펼치며 유독 ‘네티즌들의 여론’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민언련은 “‘네티즌’을 명분으로 내세워 ‘평양 올림픽’이 대다수 여론인 것처럼 다뤘고 ‘평양 올림픽’ 등 반론은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획기사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태극기 달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자유한국당)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평양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협북’정서에 힘입어 ‘정부 및 올림픽 때리기’를 통해 누군가 정치적 자산만 획득할 뿐이다. 한 때 논란이 된 남북 단일팀 구성도 이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평창올림픽법)’은 지난 2011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단일팀의 구성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화합해야 한다는 대의를 여야가 7년 전부터 약속했지만, 전후맥락은 실종되고 국론 분열만 커졌다.

이성보다 감정적 비난이 문제

‘퍼주기’ 역시 보수 정당과 언론이 즐겨 쓰는 프레임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선전과 프레임의 핵심 요소인 ‘지속성’을 충실히 따르는 셈이다.

퍼주는 말 그대로 ‘무엇을 지나치게 준다’는 의미지만,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이 크게 다가온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물품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체제 변화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깔려있다. 서로 적대하는 남북한 사이에 정부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북한에 군량미로 전용돼 군사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강조된다. 그러나 대북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분배 모니터링이 확대됐고, 장기적으로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책 반대론자들은 남북교류협력과 지원 사업을 ‘퍼주기’로

단순화 해버리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위축되고, 반정부 심리가 커질 것이라는 약점을 노린 것이다.

‘평양 올림픽’, ‘퍼주기’ 프레임은 분단체제에서 성장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뗄 수 없는 관계다.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정 정치>라는 논문에서 이하나 당시 연세대 국학연구원 HK교수는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분노와 적개심, 무시와 혐오 등 배제의 감정은 북한의 지배층에 대한 거부와 주민에 대한 연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공주의는 사회 전 방위적으로 감시와 통제의 그늘을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됐다”며 “이론교육이나 이념, 사상에 기반 한 논리보다 감정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감성의 차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평양 올림픽’ 프레임도 이성과 합리, 사실에 기반 하기보다 감정적 도구로 쓰였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기획기사

‘평화+ α ’ 프레임 절실

‘토론의 달인’이라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대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능력이 탁월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시절 그는 상대 후보로부터 연이은 색깔론 공세를 받았다. 장인어른의 과거 빨치산 경력 탓이다. 비판은 날로 거세졌고,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내 아내를 버려야 하나’고 역공을 펼친 노 후보는 회피가 아닌 정면 승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화력을 높인 결과 기여이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후 시간은 10여 년이 흘렀고, 한반도 안보 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쟁 분위기가 고조돼 올림픽의 성패마저 쉽게 예단하지 못했다. 보수 야당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평화 올림픽’ 구호는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갈등을 치유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평화의 본질적 의미는 부정하지 않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평화에 담긴 규범적 내용보다 국민이 ‘실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설명했듯 ‘간결하고 집중, 반복’이 깃든 선전 전략이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정책적으론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지, 평화정책의 방법론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다져야 한다.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비판에 대응하는 적절한 구호를 만드는 일도 소홀해선 안 된다. ‘노무현의 친구’라고 자부하는 문 대통령이 ‘민족을 버려야 하나’ 정도는 아니어도 감동과 기쁨, 내 삶을 바꾸는 ‘평화 프레임’을 개발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5일 열린 IOC 총회 개회식에서 내빈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본 기사는 2월 8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기사로부터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연구성과



최선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 21권 제 1호 (2017)

이 연구는 북한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민족’ 개념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국 이래, 북한은 ‘민족’ 개념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는 북한의 대내외적 전환점을 반영한다.

북한의 ‘민족’ 개념의 원형은 스탈린의 민족 이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 개념은 탈(脫)스탈화 과정을 거쳐, ‘혈통’ 요소를 강조하게 되었고, 1980년대 정립된 개념 정의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 범주를 해외 동포로 확장하였고 조선민족을 동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단일민족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군 신화’를 (재)창조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민족’ 개념 (재)구성은 전통의 발명을 통한 ‘근대 국가 건설’의 과정이자, ‘초국가적 민족 만들기’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수정 (덕성여자대학교)

“탈북자 심리”의 문화정치 -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절합.
현대북한연구 제 20권 제 2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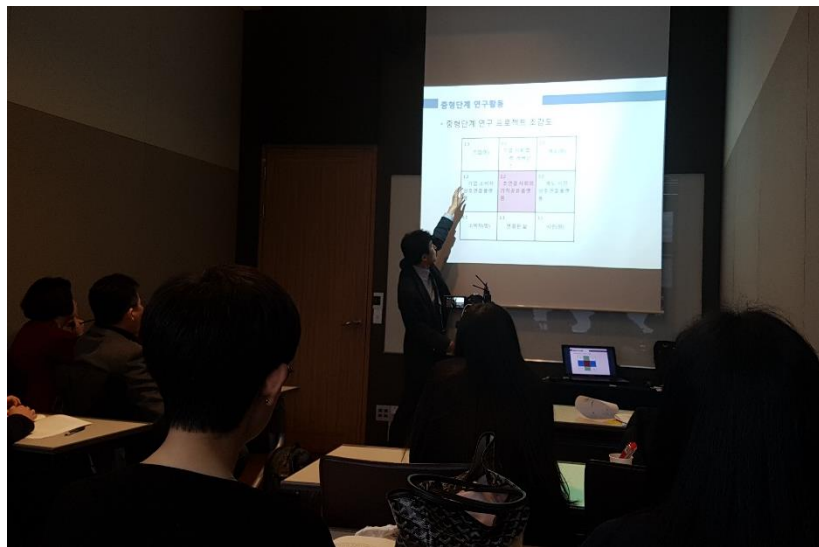
이 글은 2017년 현재 분단체제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타자화가 단지 냉전적 분단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주체형성과 맞물린 보다 복잡한 문화정치의 산물임을 논의한다. 세계적 냉전체제 해체 이전 남북한 간 경쟁이 지배적이던 시기 한국사회로 들어온 “귀순용사”들은 그 자체로 남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남한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온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주체/시민 (deserving subject/citizen)으로 재탄생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사회적

통치”에 참여해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합한 시민, 즉 “자립자활능력”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통치의 과정에서, 사고, 행동방식, 감정, 말투 등 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북한적 표식은 적국의 흔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시민이 되기에 부적절한 특징들로 대두되었고, “탈북자 심리”는 교정과 치유의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분단체제가 그 자체로 고정된 정치적 공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연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마음의 상태, 새로운 통치의 정서들을 구성해 나가는 시스템임을 고찰한다.

연구단 동정

2월 28일자로 본 사업단 연구보조원 박아람(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정고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의 근무가 종료됩니다. 중형 시기부터 사업단 업무를 도맡아 준 두 연구원들의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2월 22일(목)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사업단 참여연구원인 이수정 교수(덕성여자대학교)와 윤철기 교수(서울교육대학교)의 연구문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오랜 분단의 현재적 마음/들”이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마음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수정 교수는 태극기 집회의 광장성과 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분단 이후 지속되거나 동시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여러 ‘마음(들)’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편 윤철기 교수는 “한국 사회 소득불평등의 구조와 사회정치적 갈등의 성격변화”라는 발표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경제적 이슈 중 하나인 소득불평등과 사회정치적 갈등을 연계하는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동 연구진은 한국 사회의 주요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87년, 97년 체제에 대한 강조점과, 남한의 사회정치적 변화의 일환으로 탈식민지, 탈북한 상황 등에 관해서도 본 연구문제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월 23일(금) SSK네트워킹 통합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사업단의 최순미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가 “탈북청소년의 삶과 생각”의 제목으로 심포지엄의 리서치 트렌드 워크숍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월 2일(금), 23일(금) 본 사업단의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실시되었습니다. 2일(금) 세미나에서는 이하연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집단심리: 집단 창의성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하연 박사는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개인이 아닌 “집단”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과,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한 요소적 접근을 통하여 집단 역동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23일(금) 세미나에서는 연구보조원 김민지(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이혼 연구: 김희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지 연구보조원은 북한 이혼 여성들의 생애사/구술사를 촘촘히 분석함으로써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DMZ국제다큐영화제/북한대학원대학교 SSK연구센터 공동기획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2018기획상영회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DMZ국제다큐영화제/북한대학원대학교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2018.3~2018.8

DMZ Docs  북한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MZ국제다큐영화제/북한대학원대학교 SSK연구센터 공동기획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상영 일정>

일시	상영작	패널
1 3/10(토) 16:30	그 날 One Warm Spring Day 정수은, 2016, 84min	감독 GV - 정수은 감독 -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2 4/21(토) 16:30	경계에서 꿈꾸는 집 Dream House by the Border 김량, 2013, 89min	감독 GV - 김량 감독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3 5/19(토) 16:30	나는 선무다 I Am Sun Mu Adam Sjoberg 2015, 87min	컨택스트 해설 - 최순미 북대SSK연구센터 연구교수
4 6/30(토) 14:00	황색바람 Yellow Wind 조현준, 2016, 72min	감독 GV - 조현준 감독 - 최순미 북대SSK연구센터 연구교수
5 7/28(토) 14:00	우리가족 Our Family 김도현, 2013, 85min	감독 GV - 김도현 감독 -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6 8/25(토) 14:00	남북미성 Two Voices from Korea 조성형, 2015, 80min	컨택스트 해설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DMZ Docs  북한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본 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정기상영회가 일정을 변경하여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매 월 1회(총 6회)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상영회는 분단과 전쟁, 남북한의 다름을 지나온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과거로부터 형성된 우리의 현재적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3월 정기상영회에서는 다큐멘터리 “그 날(One Warm Spring Day, 감독 정수은)”의 상영과, 정수은 감독과 게스트(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를 초청한 GV가 진행됩니다. 일자 및 장소는 3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북한대학원 정산홀입니다.

3/23(금) 오후 4시(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SSK남북한 마음통합연구센터 3월 정기 콜로키움이 개최됩니다. 이번 콜로키움 에서는 최정규 교수(경북대학교)를 초청하여, 행동경제학의 주요 연구 장면 중 하나인 “게임이론”에 대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이 전제되어있는 다양한 게임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론 및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3/16(금), 30(금) 본 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실시됩니다. 3월부터는 매 월 1회 사업단 전임연구원의 연구분야 특강과 사업단 연구보조원들의 연구문제 발제가 번갈아 진행됩니다. 16일(금)부터 진행될 첫 번째 연구분야 특강으로는 박세진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의 사회인류학 강의가 3회 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우리 사회 내부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 이전에는 민족적 가치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누를 수 있는 민족적 가치가 훨씬 컸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민족적 가치보다는 사실은 평화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보편적 가치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지난 10여년 동안 이거는 모두가 문제가 있다. 좀 북은 계속 미사일도 발사했고 핵실험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혐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우영, [클로즈업 북한] 또 한번의 화제 물이?...북한 응원단/ KBS 2018.02.0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9일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온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으로, 김 위원장의 직계가족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파격적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김 부부장의 방남은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부부장의 방남 소식에 "진짜 실세가 내려온다고 봐야 한다"며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내는 것보다 적극적인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갑우, 김정은의 '파격'... 친동생 김여정 9일 온다/ 한겨레 2018.02.07.

북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쪽이 김 부부장까지 보낸 것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선 북-미가 접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이번 올림픽은 정부가 북-미 간 물밑접촉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묘수를 어떻게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갑우, 김여정 '김정은 메시지' 가져올까...청 "모든 의제 얘기할 준비" / 한겨레 2018.02.08.

평창겨울올림픽이 만들어낸 화해의 훈풍에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올림픽 기간 연기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고, 북-미가 날 선 공방을 재개하면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쟁 위기설'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폐막 직후부터 '평창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대화의 '입구'를 핵·미사일 활동 동결로, 출구를 비핵화로 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해왔다"며 "동결에서 비핵화까지 가는 길도 대단히 멀고 험난한 여정일 테지만, 지금으로선 대화의 입구에 어떻게 도착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갑우, 문 대통령, 북-미 적극 중재... "비핵화·대화 나서달라" 주문/ 한겨레 2018.02.26.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노메달'로 귀국한 북한이지만 외교적 기술만큼은 '금메달' 감이었다고 AFP통신이 26일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올림픽 성과와 관련해 "애당초 북한에게 올림픽이란 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에게 평창 올림픽이란 "이미지 메이킹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 교수는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불량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으며 제재를 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갑우, AFP “평창 올림픽 ‘외교 금메달’은 북한 차지” / news1 2018.02.26.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크게 '북한 경제 부문'과 '북한 국토·인프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이 세미나는 양 기관이 북한 경제 관련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공론화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국책연구기관 북한경제·국토 분야 연구성과 발표회'를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문수, KDI·국토연구원,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세미나' 개최 / 통일뉴스 2018.02.26.

칼럼

내일이면 평창올림픽의 막이 오른다. 지난 한달 동안 빨리 올림픽이 시작됐으면 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갑작스레 참가하기로 하면서 곳곳이 싸움판이기 때문이다. 남북 단일팀으로 시끄럽더니, 한반도기 입장, 인공기 게양, 대북제재 위반 소지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치화되었다.

문제는 '평화공세'와 그 대응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다는 사실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몇몇 올림픽 참가국이 한국에 오는 것을 망설일 정도로 전쟁 위험이 고조된 바 있다. 게다가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최근 행보 또한 불안하다. 평창올림픽이라는 '행사'는 곧 끝날 것이고,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그 모든 갈등과 위협은 다시금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화공세'에 움츠릴 것이 아니라, 이 국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일 게다.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에 다다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시도라도 상관없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공세'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평화'는 어떻게 '공세'가 되었나? / 한겨레 2018.02.07.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띄어쓰기’와 ‘띄여쓰기’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열린책들, 2008

“저술은 인간이, 편집은 신이 한다.”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의 2008년판 머리말에 인용된 미국작가 스티븐 킹의 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2010년판 책의 뒤표지에도 이 진술다음에, “저술은 때로 모험과 도전일 수 있지만, 편집은 언제나 100퍼센트 완성도를 향한 끝없는 노력”이라는 문장이 있다. 책을 생산한 편집자들이 책을 고르는 예비독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다. 자부심도 느껴진다. 책만들기는 내용과 형식이 함께 가는 일이라는 선언을 보는 듯하다. 397쪽의 『매뉴얼』을 5,000원에 파는 이유는 보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게다.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른다. 우리말 쓰기와 관련하여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한 개별 출판사의 이익의 “최소화”가 공공이익의 최대화를 결과하는 ‘구성의 진리’를 보여준다면, 최대화가 최소화를 만드는 ‘구성의 오류’를 정정하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한다.

『매뉴얼』이 다루는 주제들 가운데, 띄어쓰기와 외래어표기법은, 읽기와 쓰기에 편집증적 사고를 하는 이들을 유혹한다. 한글은 두 주제가 쟁점이 되는 매력적 언어다. 서양언어는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면 된다. 일어와 중국어는 띄어쓰기 없이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일어는 일상문자인 히라가나가 아니라 가타카나로 외래어를 표기하고, 중국어는 뜻과 소리에 어울리는 자신들의 한자조합을 만든다.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문장의 독해가 어렵고, 외래어를 고유의 단어와 구별해 주는 장치가 없다. 언어와 관련하여 외래를 수용하는 방법과 형태의 차이는, 밖에 대한 한중일의 심층 무의식의 차이를 생산하는 기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매뉴얼』의 띄어쓰기와 외래어표기법은 ‘국가’-문교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가 제시한 원칙과 더불어, ‘열린책’의 고유한 방침을 ‘병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열린책은 국가에 순응‘만’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는다. 합성어와 관형사의 사례를 보자. 띄어쓰기와 외래어표기법의 원칙을 제공하는 국립국어원의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다.”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국립국어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열린책은 ‘국립국어원’으로 띄어 쓴다. 한글 워드프로세서인 ‘훈글’에서는 국립국어원으로 쓰면, 붉은 줄을 긋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표시다. 합성어 전반으로 확장하면 더 복잡해진다.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에는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매뉴얼』은, “자립적인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어로 굳어지면 띄어 쓰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에 근거하여, ‘복합 명사’는 띄어 쓰지만, 가두시위나 교통경찰, 자기광고와 같은 합성어는 붙여 쓴다. 그러나 교통 법규나 자기 과시는 띄어 쓴다. 어떤 합성어가 ‘굳은’ 상태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국어사전을 확인해” 보라 하지만, 스스로 말하듯 반복해야만 “익숙해진다.” 관형어 ‘첫’도 첫걸음이나 첫국밥과 같이 특정 사례를 제시하면서 붙여 쓸 것을 권유하면서도, ‘첫 번째’는 띄어 쓴다. 외래어표기법에서는,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는 언어를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로 국한하고 있는 국가의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러시아어 표기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도스토옙스키’가 열린책에서는 ‘도스토예프스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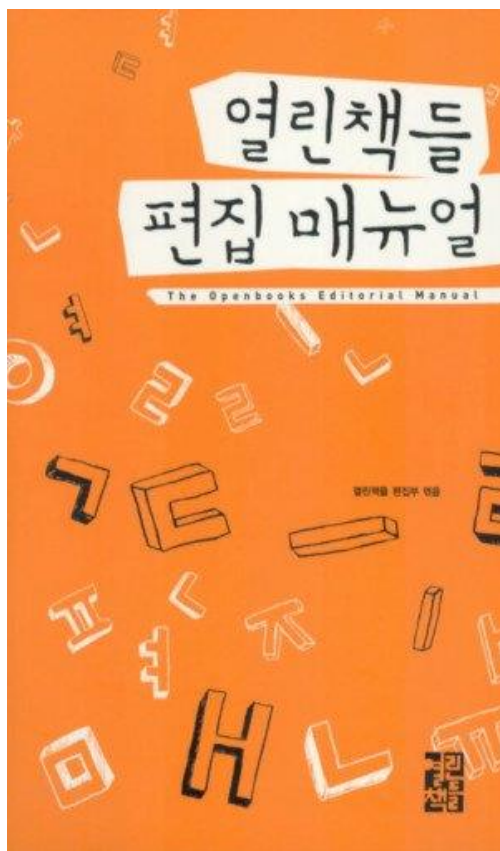
국가와 열린책보다 강한 파열음을 내는 출판사가 ‘창비’다. 창비는 합성어를 복합명사로 만든다. ‘외래어 표기법’이 아니라 ‘외래어표기법’이다. 관형어와 보조용언도 가능한 붙여 쓴다. 외래어표기법에서는 파열음의 된소리를 수용한다. 창비 ‘인문사회출판부장’ 염종선의 글, “이탈리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창작과 비평』, 2011 겨울)는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이다. ‘이탈리아’가 아니라 ‘이탈리아’로 쓰는 이유는, 원음(原音)에 충실하려는 표기의 원칙 때문이다. 또한 외래어표기법의 ‘영어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기도 하다. 러시아어에만 된소리를 도입한 『매뉴얼』도 외래어표기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판단’을 한다. 국가가 제시한 외래어표기법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원음주의를 국적주의로 이해하며, ‘플라톤’을 ‘플라톤’으로 쓰기 위해서는 플라톤 당대에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누가 그 발음을 알 수 있는가, 경음을 쓰는 것의 실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열린책은 ‘단’으로 국한시켰지만, 러시아어 한글표기에서 된소리를 쓰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한편이, 특히 국가가 진리를 독점하는 듯한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면, ‘민관협치기구’를 통해 용례를 축적하자는 염종선의 제안은, 살아 있는 생물인 우리말을 다듬는 ‘정치’의 한 전범이 되리라 생각하는 편이다.

칼럼 연재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남북한 국가의 차이도 또 다른 파열음의 원천이다. 북한의 “띄어쓰기”와 “조선어 외래어적기법”은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지적”의 대상일 정도다. 북한에서도 띄어쓰기와 외래어표기법이 쟁점이었다. 1954년 발행한 『조선어 철자법』은, 예를 들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나 “김 일성”과 같은 “띄어 쓰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붙여 쓰려 한다(『조선문화어건설리론』, 2005). 몇 가지만 살펴보자. “불완전명사는 앞단어에 붙여” 쓰고, “적, 식, 형, 성, 용, 급과 같은 한자말이나 접미사가 붙은 단어”는 “그뒤에 오는 명사와 붙여쓴다.” 예를 들어 “아는것이 힘이”고, “사회정치적생명체”다. 합성어와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는 토가 끼였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나 “모내는기계” 등이 그 사례다. “앞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도 “띄어쓴다.” “우리 나라”, “우리 말”이 예로 제시된다. “외래어적기법”은, “발음대로 적는다는 원칙”과 더불어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상관습도 고려하”고 있다(『조선로동당언어정책사』, 2005). “이탈리아”지만 “파마”도 쓴다. 또 하나 특징은, 1998년 9월부터 “다른 나라의 이름과 수도이름을 제3국에서 부르는것처럼 부르는것은 민족적자존심에 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올수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인디아”로, “독일”을 “도이칠란드”로, “헝그리아”를 “마자르” 등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로 작성하고 있는 이 글에서, 북한의 띄어쓰기와 복합명사, 외래어에는 상당수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 우리의 한글정치만큼이나 남북한의 ‘우리말 정치’가 필요한 듯 보인다.

『매뉴얼』에서 북한의 책까지를 일별하는 나의 글도, 『매뉴얼』도 ‘창비’도 아닌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오류가 있는 나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학연구자로서 이 원칙을 이론으로 표현할 능력은 없다. 염종선이 외래어표기법이 원주율 π 의 근삿값 3.14를 찾는 일이라 했지만, 그도 지적하는 것처럼 π 가 무한을 가진 무리수인 것처럼, 무한한 차이의 생산은 불가피할 수 있다. 띄어쓰기와 외래어표기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증진할 수 있지만, 그 방법과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경쟁하는 주체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이 소통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열린 책’인 『매뉴얼』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다듬어 가는 하나의 길을 열었다면, 그 길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정치도 미학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편집: 김민지 연구보조원, 이하연 연구교수